

# 제7회 송건호언론상 자료집

## 시상식

일시: 2008년 12월 11일 (목) 오후 6:30

장소: 서울 한국언론회관 20층 국제회의장

주최: 청암언론문화재단 한겨레신문사

# 제7회 송건호언론상

공동 수상자: 문화방송 PD수첩 ·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송건호언론상’심사위원회는 ‘문화방송 PD수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를 ‘제7회 송건호언론상’의 공동수상자로 선정합니다.

PD수첩은 1990년 5월 방송을 시작한 이래 대표적인 시사고발 다큐멘터리로 자리잡은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권력·자본·종교·언론이라는 금기와 성역에 도전하며 넘나들며 진실을 추구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리와 병폐를 고발하며 억눌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왔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개발 의혹을 파헤쳐 본연의 사명을 다했고, 금년도에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 미국소의 광우병 위험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켰으며 그 여파는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끈질긴 탐사 보도를 통해 ‘PD 저널리즘’이라는 영역을 개척하면서 PD수첩은 객관적인 사실보도의 차원을 넘어 시청자 스스로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를 고민하게 만드는 심층보도의 본보기로 그 위상을 지켰습니다. 그 동안 위협 앞에 굴하지 않는 제작진의 용기와 진실을 위해 기꺼이 받아들인 희생이 PD수첩의 보이지 않는 원동력이었습니다.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방송총괄본부장이던 구본홍씨가 2008년 5월 이사회에서 사장으로 내정되자, YTN노조는 직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한 현 정권과 가까운 정치적 인사가 뉴스 전문 채널의 대표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그의 사장 선임에 반대하게 됩니다. 노조원의 해고와 대규모 징계를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YTN노조의 활동은 ‘언론의 독립’이라는 민주사회 운영원리의 가치를 새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론인의 주체적인 자각과 실천이 필요하며 거기에 사회구성원의 관심과 지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섯 후보자를 놓고 심사위원회가 전에 없던 긴 토론을 거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PD수첩의 보도에 대하여 우리 사회 일각에서 존재하는 논쟁과 우려도 고려했습니다. 그

리고 YTN사태는 현재 진행중이므로 시간을 두고 더 지켜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신중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정도를 세우는데 일생을 바쳤던 송건호 선생이라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독립을 위하여 의연하게 고난을 감수하는 후배들을 격려했을 것이라 믿고, 동시에 어렵게 이어 오는 언론자유 불씨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이 이 상의 제정 취지임을 떠올리며 시상을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PD수첩의 노력과 공정방송을 지키려는 YTN 노조의 저항은 한국언론사에 기록되어 다음 세대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언론의 사명감이 퇴색되고 언론인이 하나의 셀러리맨으로 변질되는 세태 앞에 이 상이 공동 수상자의 자세를 다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개인의 이득과 영달을 위해 언론인이란 지위를 징검다리 삼지 말아야 한다던 송건호 선생의 고귀한 뜻이 언론인 한 명 한 명의 가슴 속에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언론과 권력이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때 민주사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데 '송건호언론상'이 일조하기를 희망합니다.

2008년 11월 16일

### 제7회 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이상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위원	정경희	언론인
위원	김태진	도서출판 다섯수레 대표
위원	김정기	한국언론학회 회장
위원	최양수	한국방송학회 회장
위원	채 백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위원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 수상자 소개 - 문화방송 PD수첩

## PD 수첩의 역사

2009년 1월이면 800회를 맞는 문화방송 <PD수첩>은 지난 1990년 5월 8일 첫 방송을 내보낸 이래 한국의 대표적인 시사 고발 다큐멘터리로 자리매김했다. <PD수첩>은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를 기치로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제도와 인습을 고발하고 고통 받는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다. <PD수첩>의 지난 18년은 사회적 금기와 성역에 도전하고 인권과 평화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던 과정이었다.

<PD수첩>은 소외된 이웃과 고통을 함께하고, 보다 신명 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애초의 기획의도에 따라 범죄, 권력비리 등 사회문제를 다룸과 동시에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 그리고 국내외의 분쟁문제, 지역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정치개혁, 경제정의나 학원 폭력 등 교육문제, 북한 문제, 여성문제, 언론문제에서 문화예술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소화해왔다.

<PD수첩>이 첫 방송을 내보냈던 1990년과 비교해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놀라운 속도로 진전되었으나 아직 그 건강성을 담보하기에는 이른다. 앞으로도 <PD수첩>은 '부조리한 제도와 인습을 고발하고 고통 받는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프로그램'이라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주목할 만한 보도

최근에는 2002년 미선이 효순이 문제를 제기했던 'SOFA, 미군 범죄의 면죄부인가?', 한국의 권부를 심층 취재한 '2003 한국의 권부 시리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친일 청산의 문제를 다룬 2004년의 '친일파 시리즈', 2005년 고위층의 병역 문제를 정면으로 해부한 '고위층의 국적포기, 그들은 누구인가'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에 심층적으로 접근해왔다. 특히 2006년에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개발 의혹을 심층 분석했고, 2007년에는 삼성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그 동안 1000 여 개가 넘는 핫이슈들을 과감하게 다룸으로서 수많은 화제작과 문제작을 양산했고, 사회변화에 시발점이 되는 이슈메이커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5 년간 <PD 수첩>은 이라크 파병문제나, 국가보안법, 주한미군 문제와 같이 우리 사회의 평화를 지향하는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미군 전차와 두 여중생 그 죽음의 진실'(503 회)와 뒤이은 "주한미군 재배치, 과연 위기인가"(592 회), "최종 분석, 미군 전차 사건의 진실"(640 회), "빠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646 회), "반환되는 미군기지-축복인가 재앙인가"(691 회) 등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주한미군이 갖는 의미를 돌아보고 바람직한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쟁전야, 이라크를 가다"(513 회), "파병논란, 우리는 참전해야 하는가"(535 회), "무엇을 위한 파병인가"(596 회), "김선일 사건! 무엇을 남겼나"(602 회) 등을 통해 한국군의 외국 파병과 세계 평화와의 관계를 집중 조명했다. 그 밖에도 "송두울과 국가보안법"(598 회), "탈북 시켜 드립니다"(615 회), "개성을 가다"(624 회), "연평도의 6 월"(683 회), "북한과 미국 벼랑에 서다"(698 회), "PD 수첩, 평양에 가다"(743 회), "취임 100 일, 대북정책 진단"(774 회)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과 남북 간 평화 정착에 관한 논의의 장을 제공했다.

또한 <PD 수첩>은 사회적 약자나 인권 등과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는 더불어 사는 사회, 보다 나은 사회를 지향하고자하는 제작진의 의식적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북파공작원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다"(516 회), "네 양심을 꺼내 보여라(보안관찰자문제)"(534 회), "남과 북이 버린 사람들, 국군 포로"(571 회), "남북, 그 인권의 사각지대"(593 회), "병든 병사, 제대할때까지 참아라"(657 회) 등을 통해서 남북 대치 현실에서 빚어진 인권 유린의 실상을 고발했다. 또한 "은폐된 진실-특수학교의 성폭력 사건"(656 회), "맨발의 기봉이, 그 불편한 진실"(718 회) 등을 통해 교육현장과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위기의 여성홀리스"(608 회), "남편 살해 여성의 고백, 나는 살고 싶었다"(673 회) 등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을, 그리고 "엄마 저 여기 있어요-어느 외국인 노동자의 실종"(606 회, 610 회) 등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밖에도 "타워팰리스 옆 판자촌, 23 년의 보고서"(579 회), "나도 크면 가난한가요"(634 회), "내가 정말 죄를 지었나요"(787 회), "비정규직 700 만, 위험수위를 넘었다"(585 회), "실태보고 매 맞는 직장인들"(741 회) 등을 통해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였다.

# 수상자 소개 - YTN 사태

## 사태의 발단

YTN 의 대주주는 공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권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사장 선임의 공정성과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YTN 노조는 2003 년부터 사측과 합의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원대표가 1 명과 대주주측 사외 이사 등 모두 6 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장추천위원회에서 3 배수 정도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1 인을 내정해 주주총회로 대표이사 선임안을 넘기고 주주총회를 통과하면 사장으로 선임된다. 이번에는 현덕수 당시 노조위원장이 사장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구본홍씨를 끝까지 반대했지만 사장추천위원회 단계에서 저지하지 못했다.

2008 년 4 월, 표완수 당시 사장이 임기를 석 달 정도 남기고 물러나던 때를 전후로 YTN 안팎에서는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설이 나돌았다. 구본홍씨는 2007 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방송총괄본부장이었다. YTN 노조는 내부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인사가 뉴스 전문 채널의 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비책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5 월 29 일 구본홍씨가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로 내정되면서 노조는 본격적으로 반대에 나서게 되었다.

지금의 사태는 보도전문채널 YTN 사장 자리를 대선 논공행상 대상으로 치부하면서 방송법 등 언론정책 추진을 위해 이용하려는 현 정권의 의도와 정권 사람이 언론사 사장이 되면 안된다는 노조의 상식적인 투쟁이 맞부딪히면서 발화됐다. 그러나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양심적인 노조의 요구에 현 정권은 일종의 기싸움으로 인식하면서 해고와 고소, 민영화, 재허가 등의 탄압과 협박으로만 대응한 것이 사태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진행 과정

▲5 월 29 일. YTN 이사회에서 구본홍씨 사장으로 내정. 노조가 이사회장에 사전 농성 벌이자 긴급 장소 변경. 노조, 대선특보 출신 사장 저지 위한 행동방침 선포

▲6 월 9 일. 노조 집행부, 대선특보 출신 사장 저지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현덕수 위원장 등 청와대 앞 1 인 시위 돌입

▲6 월 11 일. YTN 공채기수 구본홍 사장 반대 연쇄성명 시작. 차장단 기자를 비롯 1 기부터 10 기까지 전 공채기수들이 동참

- ▲7 월 14 일. 1 차 주주총회. 노조 저지로 연기
- ▲7 월 17 일. 2 차 주주총회. 노조 저지 속에서 용역 경비업체 직원 200 여명 동원, 30 여 초만에 구본홍 대표이사 선임 안건 통과. 노조, 원천무효 선언. 기자회견 성명 "구 사장 선임 무효"
- ▲7 월 18 일. 노조, 구본홍씨 출근저지 돌입. 구본홍씨 출근 시도 10 분 만에 귀가
- ▲8 월 12 일. 노종면 신임 위원장 당선
- ▲8 월 20 일. 노조, 출근저지 투쟁 더욱 강력하게 전개
- ▲8 월 26 일. 구본홍씨, 보도국 부.팀장 인사 강행. 노조, 즉각 인사 거부
- ▲8 월 29 일. 신재민 차관, "YTN 주식 중 공기업이 소유하는 지분을 매각' 발언 파장
- ▲9 월 1 일. 구본홍, 취재기자 24 명에 대한 인사 강행. 노조는 이를 보복성 인사로 보고 거부. 노조 총파업 투표 실시 결정
- ▲9 월 9 일. 사측, 노종면 위원장 등 조합원 6 명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 ▲9 월 10 일. 노조 총파업 투표, 76.4%로 가결
- ▲9 월 12 일(추석 전날). 사측, 조합원 6 명 추가 고소
- ▲9 월 16 일. 노조, 생방송 중 '공정방송' 피켓 시위
- ▲9 월 24 일. 사측, 조합원 33 명 징계 위한 인사위 소집. 대상자들 심야까지 무한정 대기 사태
- ▲9 월 25 일. 고소대상자 12 명 남대문경찰서 출두. 사측, 경찰서 출두자 포함한 인사위 징계 대상자들 일방 소환 통보
- ▲9 월 29 일. YTN 젊은 사원들 모임 55 명, 단식 농성 돌입. 이어 조합원 300 여명 단식 동참.
- ▲10 월 6 일. 사측, 노종면 위원장 등 6 명 해고. 6 명 정직 등 33 명 중징계 강행

▲10 월 7 일. 국제기자연맹 집 보멜라 회장 YTN 방문, "YTN 노조 지지, 실사단 파견" '돌발영상' 불방 시작

▲10 월 8 일. YTN 앵커 "블랙투쟁" 시작

▲10 월 9 일. 방송통신위 국정감사. 노종면 위원장과 구본홍씨 출석. 구본홍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만난 적 없다"고 하다 "한두 번 만났다" 거짓 증언

▲10 월 10 일. YTN 기자 해고 규탄 타사 일선 기자들로 확대.

▲10 월 13 일. 국제기자연맹 YTN 노조 지지 성명

▲10 월 16 일. YTN 노조, 징계무효소송 제기

▲10 월 24 일. 구본홍씨, 강철원 보도국장 직무대행 임명. 강철원 대행, 기자 성향분석 실시. 노조 활동 차장들의 기사 승인권을 없앴.

▲10 월 31 일. 사측, 노조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11 월 13 일. 노조, '공정방송' 로고 방송 노출 투쟁.

▲11 월 14 일. 사측, 노종면 위원장 등 4명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

▲11 월 18 일. 사측, 배석규 전무 등 조직 확대 개편. 노조, '경영 무시한 구본홍 구하기 친위대 구성했다'고 반발. 노조, 구본홍과 함께 배석규 출근저지 병행 시작.



## 축 사 - 고광헌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제 7 회 '송건호언론상' 시상식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암 송건호 선생은 고난과 굴절로 점철된 우리 언론계에서 누구보다 강직하게 참된 언론인의 삶을 사시다가 가신 분입니다.

선생의 삶은 이 땅의 언론자유역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1974년 흑독한 유신정권 아래 젊은 후배기자들이 자유언론수호투쟁에 나설 당시 선생은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후배기자들이 해직돼 거리로 쫓겨날 때 선생 역시 스스로 편집국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자유언론 수호에 동참했습니다. 선생은 이후에도 전두환 정권에 맞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섰습니다. 1985년엔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결성하고 초대의장을 맡았으며, 월간 <말>지를 통해 군부정권의 언론통제 실상을 폭로하는 등 민주화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선생이 '저항 언론인의 거목', '우리 시대 언론인의 사표'로 불리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선생은 한평생 청빈함을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저희 한겨레신문사 2층 로비에는 청암 선생의 유품 가운데 일부가 전시돼 있습니다. 볼펜으로 힘있게 눌러쓴 육필원고 하며 낡은 안경, 현직 기자시절 남북 적십자회담 취재 등에 사용했던 낡은 카메라엔 고난 속에서도 양심과 신념을 지키며 선비의 길을 걸었던 그의 기개가 남아 있습니다.

청암 선생은 또한 굴곡 많은 한국현대사 연구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70, 80년대 대학가의 필독서로 꼽혔던 <한국 민족주의의 탐구> <한국 현대사론> <한국현대언론사> <해방전후사의 인식>(공저) 등 20여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가로서 청암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직 외길, 참언론인의 삶을 살다 떠나가신 선생을 생각할 때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한 <문화방송 PD 수첩>과 <YTN 노동조합>을 일곱번째 <송건호언론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내년 1 월이면 800 회를 맞는 <PD 수첩>은 지난 1990 년 5 월 8 일 첫 방송을 내보낸 이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사 고발 다큐멘터리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1000 여 개가 넘는 주요 이슈들을 다루면서 사회적 금기와 성역에 도전하고 사회적 약자와 인권 문제, 평화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며 심층보도의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낙하산 사장 문제로 촉발된 <YTN> 사태는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마치 20 여년 전으로 되돌린 듯합니다. 공정방송을 지키려는 <YTN> 노조의 저항은 이땅의 언론민주주의란 무엇이며, 직업인의 하나로 전략해가던 언론인의 자세와 사명감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 수상자인 <문화방송> PD 수첩과 <YTN> 노조에 다시 한번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청암 선생의 평소 생각과 실천을 담은 평전 <나는 역사의 길을 걷고 싶다> 출판을 축하합니다. 선생의 고귀한 삶과 정신이 언론계는 물론 학계와 우리 사회 전체로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상희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장님과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암 선생의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축사 - 정동익 동아투위 위원장

### 언론자유는 언론인 스스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 정동익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하신 MBC 피디수첩 여러분과 YTN 노조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자유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 기도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독재정권 때나 있을 법한 방송장악 기도에 맞서 언론인들이 꺾기하고 있고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의 언론자유수호투쟁의 전면에 피디수첩과 YTN 노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피디수첩은 지난 18 년동안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고발하고 힘 없는 소외계층을 대변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4 월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의 위험성을 사전에 문제 제기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전국민적인 촛불대항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이정권은 검찰까지 동원해 피디수첩 관계자들을 탄압했습니다. 피디수첩은 진실을 추구하는 심층탐사보도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공동수상하신 YTN 노조의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은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모범적인 투쟁입니다.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보도전문 채널에 대통령후보 언론특보를 사장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정권측은 묵살했습니다. YTN 노조원들은 6 명 해직등 33 명이나 중징계 당하면서도 수개월이 넘도록 끈질기게 투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는 언론인 스스로 쟁취하는 것일 뿐 누가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대명제를 피디수첩과 YTN 노조는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상되는 송건호 언론상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후배 언론인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진실을 보도하기 위한 피디수첩의 언론인 정신과 공정방송을 지키려는 YTN 노조의 결연한 투쟁은 한국언론사에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아울러 송건호선생님의 평전이 출판된데 대해 선생님을 존경하는 후배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쁩니다. 송선생님 처럼 지사적인 언론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요즘 송건호평전은 언론인들을 이끌어줄 등불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이득과 영달을 위해 언론인의 지위를 징검다리 삼지 말아야 한다는 송건호 선생님의 고귀한 뜻이 이번 평전 출판을 계기로 모든 언론인들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길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수고해주신 청암언론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피디수첩과 YTN 노조의 송건호 언론상 수상과 송건호평전 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상 소감 - 조능희

## 조능희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PD (전 PD 수첩 CP)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한판 승부가 아닙니다.

PD 수첩이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YTN 노조와 같이 공동 수상하게 된 것은 더욱 더 큰 영광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해고를 무릅쓰며 고난의 길을 묵묵히 의연하게 걷고 있는 YTN 노조 동지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송건호언론상의 공동수상 외에도 YTN 노조와 PD 수첩이 공통으로 받은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받은 동지입니다. 검정 옷을 입은 죄와 공정방송을 안했다는 등의 죄목입니다. 제도권으로부터 벌 받은 언론인이 오히려 영예를 차지했던 7-80 년대의 상황이 2008 년 21 세기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곡학아세하고 무문곡필하며 정권과 발을 맞추는 학자와 언론인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으니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조직원임을 강조하며 회사 먼저 생각해야한다는 투철한 기업정신으로 무장한 언론인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열토당토않은 사실로 국민을 속이며 PD 수첩에 흠집을 내는 기사를 썼던 어느 기자가 보내온 문자메세지는 '기사로는 조중동이지만 마음으로는 PD 수첩을 지지한다'였습니다. 이런 희극이 21 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인에게 국민의 알 권리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언론인 개인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비극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 비극과 배신에 맞닥쳤을 때 우리 언론인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송건호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배들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PD 수첩은 존경하는 선배들을 따라 배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인 1990 년에 만들어진 PD 수첩은 18 년 동안 800 회 가까이 정치권력, 재벌, 종교, 언론, 심지어 과학권력까지도 비판 견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방송불가 판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기자와 피디가 해고당하는 일도 겪었습니다. 이것이 52 일 파업의 한 원인이 되어 많은 언론동지들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선배들께서 만들어놓은 전통이 PD 수첩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20 년 전 송건호 선생님과 선배들께서 한겨레신문 창간을 준비하면서 내건 슬로건 중에 '민주주의는 한 판 승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 년에 걸쳐 꾸준히 성장한 언론자유와 독립의 환경덕택에 다시는 겪게 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일들이 요즈음 재탕 삼탕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시 '승부'라는 말을 떠 올리게 됩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 역시 한판 승부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친일파 문제나 미군전차와 여중생사건이거나, 황우석 박사든 광우병이든 PD 수첩은 그저 평소 해오던 것을 계속하면서 언론이 해야 할 일을 그저 묵묵히 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 방송통신심의위, 심지어는 검찰까지 나서고, 정권에 따라 말을 바꾸는 신문들의 비난 속에서도 송건호언론상을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의미를 PD 수첩 제작진은 가슴 속 깊이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수상 소감 - 노종면

##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지부장

투쟁과 관련한 법적 대응 문제로 변호사를 만나고 회사로 돌아오던 길에 '송건호 언론상' 수상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투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과분한 상이 아닌가?'

이내 생각의 방향을 고쳤습니다. '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러다 승리라는 말의 의미를 곱씹어 봤습니다. 승리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YTN 노조는 지난 봄부터 권력자의 오만으로부터 공정방송을 지켜내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YTN 노조의 승리란 '공정방송을 지켜내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다다르고서야 '반드시 승리하리라'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은 '공정방송'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낙하산 사장을 쫓아내는 일은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임을 깨닫습니다. 과분한 상을 받게 된 YTN 노조는 약속합니다.

낙하산 사장을 쫓아내고 '공정방송'의 가치를 YTN 보도에 담아낼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낙하산 사장 하나 쫓아냈다고 자만하다 투쟁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겠으며 낙하산 사장이 권력에 기대 쉬 물러나지 않는다 하여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송건호 선생을 비롯해 언론 민주화에 인생을 바치신 선배들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후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큰 상 주신 뜻 고맙게 받아 투쟁의 동력을 배가하겠습니다.